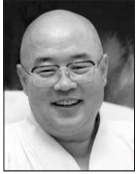


일주 문



고승초청대법회 설법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은 7월 20일 영천 충효사에서 열린 고승초청대법회에서 초청법사로 설법했다.



안성 파라일 병원 개원 사진전
각현 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은 7월 25일 안성 파라일 병원에서 개인축하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전은 10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일본 오사카문화원서 영산재
육천법음대 학장 마일은 스님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오사카문화원 대극장에서 영산재를 봉행한다.



'행복한 미소' 발원예제 CD 출시
성전 스님(남해 용문사 주지)은 BBS '행복한 미소' 발원예제 CD를 출시했다. 가격은 1세트에 1만5천원이다. 부산불교방송 (051)797-5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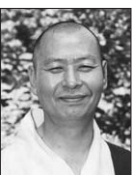
일본정부 규탄 성명 발표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대원장(회장) 지암 스님은 7월 19일 강원도 인제에서 중흥회 회원들과 함께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홍천 지장선원 관음 원불 정안식
홍천 지장선원 주지 도성 스님은 7월 20일 일산도량에서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지장, 관음 원불 정안식을 봉행했다.

부고

고성 건봉사 주지 영도스님 입적



강원도 고성 건봉사 주지 영도 스님이 7월 21일 오전 세시 59세, 법랍 43세로 입적했다. 영도 스님은 1964년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65년 부산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0년 속초 신흥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스님은 86년 철원 심원사 주지를 거쳐 포교원 연수부장과 포교부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고성 건봉사 주지소임을 맡아왔다. 영결식은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교구장으로 7월 23일 봉행했다.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 타계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이 7월 20일 오후 3시경 자택에서 89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홍승희 이사장은 1920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현 서울대 상대 전신인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뒤 재무부장관과 국민대 이사장, 중앙통신 사장 등을 역임했다.

영결식은 7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대법당에서 대한불교진흥원장으로 봉행했다.

“좋은 작품·원력이 대중 관심의 힘”

창단공연 ‘매혹’ 마친 극단 양지무리 남우성 대표

“불교가 지닌 종교의 신성함과 대중 예술이 지향하는 창조성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독히 아련하네요. 태백산 홍제암에서 3천배로 다졌던 신선도 10년이 흘렀습니다. 예술로 먹고사는 불자의 사명감일까요. 연극 ‘매혹’은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불교극단 양지무리 남우성(43) 대표는 7월 20일에 막 내린 연극 ‘매혹’에 담긴 속내를 고백했다. 한국불교의 3대 종단이 후원했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관3주년 기념에 발맞춰 공연돼 그 의미는 더욱 남달랐다.

“시작은 ‘이방원과 불교는 과연 무엇일까’였습니다. 사실 회암사도 없었고, 매개는 ‘피’입니다. 많은 이들이 태평성대로 평가하는 시대의 논리를 불교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위한 태평성대인가. 절대가치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것들이 사실은 ‘전도몽상(顛倒夢想)’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연극 ‘매혹’은 미망과 허상에 사로잡힌 악연에 얽힌 이방원과 주변인들이 윤회해 현세에

서 만난다. 과거 조선 왕조의 장엄함은 사라지고 황폐한 회암사 터에서 전생의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의 칼날을 세운다. 악업은 악업으로 풀 수 없다는 보살의 말에 갈등하지만 끝내 버린 분노와 욕망의 소용돌이는 모두를 자멸하게 할 뻔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불교 소재로 표현된 다양한 예술과 연극 ‘매혹’을 비교할 때 공감대의 폭이 좁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불자의 경계를 넘어 대중과 호흡하는 나눔의 코드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낍니다.”

작가중심주의를 지향하는 극단 양지무리는 좋은 작품과 원력이 함께한다면 대중의 관심을 부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번 공연을 위해 각 분야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온 전문가만을 섭외했고, 불교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합심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연극 ‘매혹’은 천도제입니다. 불교문화가 지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종교간 화합의 장으로 동등 대화할 때 그것이 삼귀의가



아닐까요.” 그러나 남 대표는 지금 빛더미에 올라앉았다. 관객의 입장도 수입과 일부 사찰의 후원금은 3천여만 원. 공연에 들어간 비용은 9천여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가연속 기자 fomalflower@buddhapia.com

“중생들 행복 느끼는 무대 만들 것”

우리하이로즈 구단주 대행 취임한 차길진 법사

“사는데는 정중동(靜中動)도 필요하지만 동중정(動中靜)도 필요합니다. 스포츠는 동중정을 배우기 좋은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삶속에서 종교를 배우고, 문화 속에서 진리를 단련하는 장을 열겠습니다.”

7월 20일 ‘우리하이로즈 야구단’ 구단주 대행으로 취임한 차길진 법사(한국불교신선 사장). 종교인이 구단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와 기대 속에 차 법사는 스포츠와 문화를 접목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등 우리하이로즈 구단의 비전을 보였다.

“삶에는 근엄한 부처님뿐만 아니라 화내는 부처님, 돈 버는 부처님도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삶, 종교와 야구는 떨어져 있지 않죠. 2002년 월드컵 때 스포츠로 전 국민이 한마음을 이룬 것처럼 끼가 넘치는 우리 민족에 맞는 신명나는 포교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문화적 실천으로 회향하겠다 마음먹은 그는 오래 전부터 우리 하이로즈

주주로 후원 활동해왔고 구단 내부 사정으로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차법사는 현재 오성INC회장, 사단법인 후암미래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오페라 ‘Only Love’ 작업과 대학로에 300석 규모 극장을 완공하는 등 문화와 종교 전반에 걸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하이로즈 야구단 운영과 함께 대학로 명상센터를 마련해 대중적인 활용을 할 계획인 그는 ‘행복’을 화두로 삼은 수행자였다.

“먼저 자신이 행복을 느껴야 다른 이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이로즈’라는 무대에서 직접 행복을 느끼고 가져가길 바랍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결식아동 후원자에 감사패



천태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정산)은 7월 3일 청원 원흥사에서 천태종 결식아동후원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월도 스님(삼문사 주지), 도산 스님(대성사주지) 등 천태종 7개 사찰 주지스님과 개인후원자 73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지구촌공생회 몽골 공생유치원 준공식



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월주)는 7월 19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아르막지역에서 공생유치원 준공식을 가졌다. 월주 스님을 비롯 종주 스님(노적사 주지), 원광 스님(금산사 부주지)과 몽골주재 이강선 영사, 몽골 건단사 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JTS 굶주리는 북한어린이 돕기 캠페인



7월 22일, JTS와 아름다운가게가 공동진행하는 ‘북한1급식량지원연대인기증원대회’에 달린드 한고은씨가 동참했다. 한고은씨는 아름다운가게 인공젖에 드림마 경성스프링 소품 3점을 기증했다. 노덕현 기자

소아암백혈병 환아를 위한 희망콘서트



7월 23일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는 불자기수 주권기씨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콘서트에는 생령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소아암 환아 돕기 캠페인이 함께 열렸으며, 지역 불자연주가인 유상호씨 등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교육원, 역사문화탐방 열어



사단법인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이순규)은 7월 27일 ‘남도 답사1번지 강진을 찾아서’를 주제로 어린이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7번째로 백련결사터전인 백련사와 다산초당 강진 청자 박물관 등을 탐방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대학 및 기초참선 수강생 모집안내

◆ 제27기 선하불교대학

초심자는 물론 불교를 실행생활로 하고 있는 일반불자들 까지도 불교교리는 방대하고 심오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강좌를 통하여 불교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용어, 교리, 사찰예절, 기도 및 참선수행 등 불교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됩니다.

- 법사 : 헤거 큰스님
• 대상 : 불교에 처음 입문한 초심자 및 일반불자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2시
• 회비 : 14주에 6만원 (점심공양 제공)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문의 및 안내:

서울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삼우빌딩 405호 ☎ 02)445-8484 / 팩스 02)445-8043

금강선원 선하불교대학

◆ 제 13기 기초참선 과정

참선을 처음 접하거나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반입니다. 앉는 법부터 단계적인 지도로, 강의·좌선실수·묵언·지관경수·생활선·간화선 연습을 통하여 누구나 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법사 : 헤거 큰스님, 지도법사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저녁 08시 - 10시
• 회비 : 20만원 (14주)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1매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교육일 : 8월 5일 화요일반 • 교육시간 : 오후 1시

▶ 교육기간 : 6주(24시간) ▶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 사항

-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송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송은 자리에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창 -

(사)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